

# 문화마케팅과 조명의 역할

The cultural marketing and role of lighting

필자 : 서혜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교수  
by Seo, Hye-ock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본 대학원 산업미술과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예술학과에서 영상예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청와대 정책위원과 서울시 디자인심의위원, 인천시 디자인위원, 국토해양부 등 디자인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사)한국색채학회와 (사)커뮤니케이션 디자인협회 상임이사이며, (사)조형교육학회 학술연구 위원장과 (사) 한국공간환경디자인학회 부회장으로 학회와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부천시, 송파구, 중구 등 디자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콘텐츠&디자인연구소 소장이다.

## 목 차

1. 문화마케팅과 조명의 역할	손장복	동양대 교수
2. 미디어 파사드-건축과 조명의 만남	방선주	승실대 석사
3. 도시 공공디자인과 빛환경	김국선	김포대 교수
4. 도심 보행자중심가로의 야간경관과 경관조명 연출	이지은	홍익대 석사
5. 색채에 의한 조명디자인	서혜옥	중앙대 교수
6. 도시 빛환경과 조형성	김영진	이화여대 석사

색채는 생활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회 변화에 가장 민감한 작용을 하며 문화에 의해 달라지기도 한다. 색채는 그 나라 민족과 정서에 대한 상징이고, 기호와 관습으로 서로 다른 감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구매결정을 내릴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정을 표현하고 언어를 대신하기도 한다.

빛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문을 열어주어 다양한 공간은 물론 이거니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준다. 영혼과도 같은 빛은 실제 없이도 존재하며 동시에 형태와 실체를 비

춤으로써 아름다운 것들이 빛을 반사하면서 그들의 색채를 드러낸다. 빛은 색의 일부분으로서 색채는 빛에게 빛은 색채에게 광채를 준다.

빛과 조명은 어두움을 밝히지만 조명은 여러 요소의 복합적 작용을 통해 조명디자인으로 발전되고 조명디자인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환경디자인의 요소가 되었다. 이렇듯 색채와 그리고 환경디자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명디자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5. 색채에 의한 조명디자인

### 5. Lighting design accompanied by color

급속한 시대의 변화로 색채에 의한 조명디자인은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인공물인 도시의 공공디자인과 자연환경을 자연스러운 조화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연결고리로 우리들에게 좀 더 가까이 접근되고 있다. 이처럼 색채는 도시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아름다움과 안전까지 보장해 주고, 조명디자인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환경에 의한 공공디자인으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발전되고 있다.

최근 도시 색채에 대한 인식의 보편화로 조명으로 인한 공공디자인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색채로 둘러싸인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환경은 색채로 둘러 싸여있고 조명에 의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정보의 80%이상을 시각정보에 의존하게 되고, 색채는 시각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의 디자인 구성요소로 색채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인간은 색채에 의한 환경에서 정보를 얻게 되고 우리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회변화에 가장 민감한 작용을 하게 된다. 색채는 문화에 의한 민족성과 지역성 등의 변화에 의해 자연적인 영향과 인공적인 영향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게 하며 경제적 가치 상승의 효과로 삶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색채는 그 나라의 민족과 정서에 대한 상징이고, 기호와 관습으로 서로 다른 감성을 지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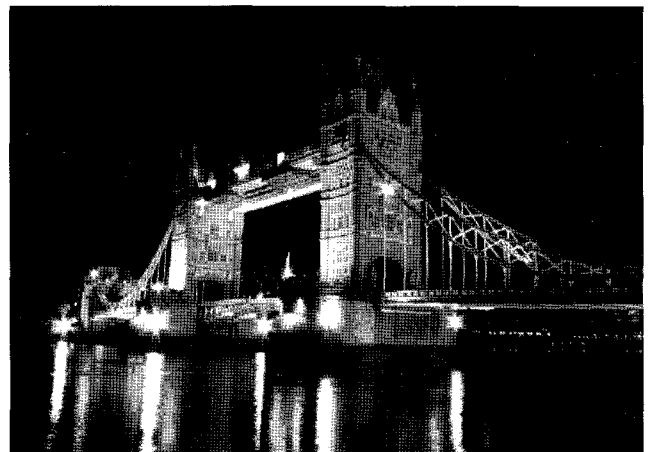
색채는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중요한 요소로, 소비자의 구매환경도 제품의 기능과 성능에 대한 관심에서 소비자 개개인의 기호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자 중심의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개성이 높아짐으로 시장 환경도 디자인 중심으로 소비자의 감성에 맞는 제품 개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색채로 인한 환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환경으로 인한 색채는 우리 인간에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도시의 환경디자인은 조명디자인과 색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디자인이 곧 경쟁력이다' 라는 패러다임으로 조명디자인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다. 건축물, 교량, 조형물, 시설물 등은 조명디자인의 색채에 의해서 다양한 이미지로 한층 업그레이드 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색채는 새로운 감정의 표현을 나타내기도 하고 인간에게 기호로서, 또한 언어로서 내면의 모습을 수용하는 중요한 의미로 우리들을 여유롭게 만들

고 있다.

인간은 색이란 에너지로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발견하면 매우 기뻐한다. 눈으로 색의 에너지를 얻기 때문이다. 색이란 언어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표현하는 말 없는 언어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심리적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조명에 의한 다양한 색채도 단색 조명에 비해 도시 속에서의 또 다른 도시를 연출하고, 도시 속에서의 자연을 강조하고, 또한 새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테마를 연출하게 된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것도 조명디자인에서 오는 색채의 영향으로 조명디자인과 색채는 아름다움과 감성체험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 삶의 질적 향상으로 현대인들은 생활문화 다양성과 고급화로 색채에 의한 조명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명(Lighting)은 우리생활에서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고 그 기술은 빛에 의해서 연출된다.

빛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문을 열어 주어 다양한 공간까지 볼 수 있게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표현해 주는 것도 빛이다. 우리는 빛을 볼 수도 있고, 빛을 생각할 수도 있다. 빛은 아침에 태어나서 확대되기 위하여 투쟁하고 정오가 되면 그 소유의 충만함에 도달한다. 그리고 곧 기울어져서 자취를 감춘다. 황혼의 다음에는 어둠이 오고 빛은 사라진다.

빛은 영혼과도 같다. 빛이 없다면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와 반대로 빛은 영혼과 마찬가지로 실체 없이도 존



영국 타워브릿지의 야간 경관

재한다. 세상에는 그 자체로서, 그 형태와 실체에 의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빛이 그것들을 비추어 주고 그것들의 아름다움을 반사해 주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것들이 색채로 존재하는 것이다. 색채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빛이 있다. 색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다가오고 있음을 증언 해 준다. 빛은 정신의 표시이고 우리의 표시이다. 빛은 모든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빛은 신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빛은 색의 일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다. 색채는 빛에 장식적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빛과 일체가 되어 빛과 구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여기에는 상호 교환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색채는 빛에게 빛은 색채에게 광채를 준다.(예술과 영혼, 르네위그)

빛은 인간에게 사물을 지각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시각적 매개체로 사물을 현상적인 무(無) 속으로 빠져드는 어둠의 교차로 우리에게 강한 인상으로 서로 상반되는 대립의 이미지를 시각적 차원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빛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으로 어둠에서 발하는 것이 빛이다. 빛과 조명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지만 예술을 창조하는 요소로 기술, 과학, 예술의 복합적 영역으로 조명을 활용한 조명디자인으로 발전되고 조명은 자연조명과 인공조명으로 분류된다. 인공조명은 조절 가능한 빛의 의미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므로 공간에 빛이라는 매개수단을 이용하여 양적, 질적으로 효과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명은 단순히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내는 기술과 예술을 함께 의미한다. 조명에 의한 빛은 우리생활에서 어둠을 밝혀주는 것에서부터 공간의 연출, 실내환경, 공공디자인, 환경디자인에서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예전에는 조명하면 우리 생활을 밝혀주는 것만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우리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조명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조명디자인의 영역은 공간의 연출에 의한 다양성으로 문화와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문화와 예술은 물론이고 건축물과 교량, 조형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조명디자인으로 작품화 되고 있다. 우리주변을 생각해 보자 얼마나 많은 조명이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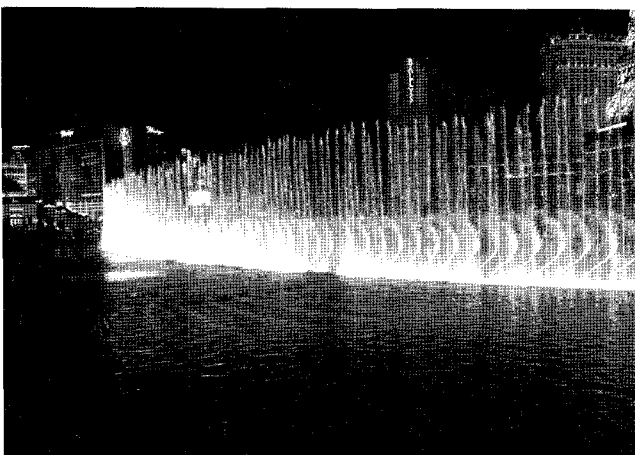
을 과시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 또한 조명 디자인으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구현하고 있다. 여러 나라의 도시들도 조명디자인과 컬러에 의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시설물 디자인, 건축물디자인과 도시디자인까지 변화를 주고 있다.

이처럼 현대의 조명디자인은 단순히 주위를 밝게 하는 기본적인 기능에서 어느 공간과 시설을 돋보이게 하는 공간연출의 주요 요소로 발전되고 있다. 강조하고 돋보이게 하는 아름다움 이외에 안전성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이미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환경으로 발전되고 있다. 조명디자인의 발달은 쾌적한 조도를 형성해 주는 단순 매개체에서부터 여러 산업분야에 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조명에 의한 환경디자인은 우리에게 시각적 감성을 주는 조형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어 현대 디자인 영역의 한 분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색채에 의한 조명디자인은 도시공간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는 물론이고 우리들의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 모든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생활공간과 공공환경에서 느끼는 편리함과 감성체험 등으로 인해서 쾌적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환경성 회복으로 아름다움 추구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최근 색채에 의한 조명디자인은 물리적인 기능을 넘어 심미적 기능도 강조되어 일상생활에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연출로 색채에 대한 아름다움의 요소로 주어진 환경과 공간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있다. 이것으로 인간의 내면에 잠재한 무의식적인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시각적 미를 더해줌과 정서적 효과와 분위기, 기능과 안전성 등으로 목적에 알맞은 조명디자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현대는 감성 중심이 되는 스토리텔링에 의한 감성 시각 커뮤니케이션도 적용이 되고 있다. 시각은 오감 중에서 중요한 역할로 시각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색채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색으로 승부하는 시대이다.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친환경적인 조명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간은 색을 즐기고 색으로 문화를 만들고, 인간의 문화는 색의 문화로 색에 대한 기호는 산업과 경제까지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기억된다. 색채에 의한 조명디자인은 도시의 경제성과 효율성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유로움과 색채에서 느끼는 안락함 등이 우리 생활에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색채에 의한 조명디자인으로 빛 그 자체만의 표현의 범위를 넘어서 환경변화에 맞는 색채를 구성하는 아름다움의 표현으로 우리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고 감성적 만족감을 주는 조명디자인을 기대한다. ■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야간 경관